‘젊음과 세계를 잇다’ 보성다향대축제 내달 1일 ‘팡파르’

군,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서 개최…차문화 재해석
찻잎 따기·전통차 만들기·야간 영화관·천체관측 행사

지난해 보성다향대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찻잎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보성군에서 전통 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 대한민국 대표 차(茶) 문화관광축제가 열린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란 주제로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말차’를 핵심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워 젊은 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보성 찻잎 따기, 전통 차 만들기 체험, 보성말차 브랜드관,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 파티), 보성 티 마스터컵 등이 마련돼 방문객이 생산부터 음용까지 차문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성말차 브랜드관’은 이번 축제의 핵심 변화로 꼽힌다. 브랜드관에서 보성 말차를 활용한 음료·디저트 체험과 제품 전시·판매를 동시에 운영해 말차의 산업적 가치와 경쟁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 파티)’은 지난해 수요에 힘입어 4일간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참여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개편돼, 차밭 경관과 함께하는 보성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보성 Tea지컬-100(녹차올림픽), 녹차도둑을 잡아라(경찰과 도둑), 보성 티-콘서트(Tea-Conert) 등 남녀노소 세대별 참여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역동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야간 콘텐츠로는 차밭을 배경으로 한 차밭 별빛 시네마(야간 영화관), 보성에 물든 달(천체관측 및 캠핑) 등 감성형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낮과 밤이 이어지는 축제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트로 콘셉트 결혼식 체험, 차밭 포토존, 스냅 촬영 프로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강화해 젊은 관광객의 참여와 확산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서상균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전통 차문화의 계승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성말차를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다향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Local 100)’에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축제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보성군민의 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녹차마라톤대회 등이 함께 개최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UN 기후주간·녹색대전환 국제주간’ 준비 점검

시민 등 2만1000여명 참여
교통·의료 지원 체계 확립
참여형 업사이클링 체험 등
‘세계섬박람회’ 홍보관 운영

여수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제4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초전이 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제4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당사국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 등 2만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개회식 및 고위급 정책 대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세션 및 개회식,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세계 기후도시 포럼, 시민 참여형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사무총장 등 주요 외빈이 참석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한다.

시는 행사장 운영을 위해 31개소의 회의장과 163동의 부스를 설치하고 국제관 A동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행사 전 소방·전기·가스 분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 경찰 1개 중대와 소방 장비 7대를 상시 배치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사장 내 응급의료센터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며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도 마쳤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기후주간 행사는 여수가 국제적인 기후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섬박람회 개최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며 “남은 기간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행사 기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홍보관을 운영해 ‘나만의 섬 여권’ 리플릿 스탬프 이벤트와 섬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섬박람회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민생회복지원금 전 시민 15만원 지급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9월까지 사용

순천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도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위 30%를 포함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급기준일(2026년 4월 2일)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7만9000여명이 해당된다.

지급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단 시민 편의를 위해 25일은 주말에도 신청 창구를 운영하며 요일제 운영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7일부터는 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순천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신청은 시 홈페이지 내 신청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순천사랑상품권 앱(CHAK) 가입은 필수다.

신청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능하며,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성인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마트 등 순천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화순문화관광재단, ‘제1회 오르막 영화제’

25일 화순시네마…‘1980 사북’ 등 6편 구성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화순시네마에서 지역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제1회 화순 오르막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탄광과 노동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소재를 영화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의미를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상영을 넘어 창작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참여형 영화제로, 지역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상영작은 국내·외 수상작을 포함한 총 6편으로 구성됐다. ‘1980 사북’,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국제시장’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들이 관객과 만난다.

상영 이후에는 ‘1980 사북’ 박봉남 감독과 한경수 PD,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박기복 감독이 참여하는 감독과의 대화(GV)가 이어져 제작 과정과 작품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 앙상블 ‘위로’의 특별 공연이 더해져 영화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사전 예매는 지난 14일부터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잔여 좌석이 있을 시 현장에서 선착순 무료입장도 가능하다.

구종천 대표이사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과 연결하고, 영화라는 매개체로 지역 사회와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한다”면서 “탄광과 노동이라는 주제가 지역의 역사와 삶을 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곡성, 지역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20개 기업 대상 비용 50%·최대 300만원

곡성군은 중소기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또 2025년도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2025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지역 내에서 지역 외로 판매·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로, 기업당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군은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해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부 중인 기업, 타 기관의 물류비 관련 보조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누리집(https://www.gokseong.go.kr/kr/main.do)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기간 동안 공장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몰, 봄맞이 특산물 최대 50% 할인

22일까지 김치·낙지 등 소비 기반 확대

고흥군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이 오는 22일까지 봄맞이 특별 기획전 ‘이건 그냥 고흥이라 삽니다’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고흥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김치, 완숙 토마토, 낙지 등 고흥을 대표하는 농수산물과 건강식품이 행사기간 동안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특히 고흥은 청정 자연환경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 기반을 갖춘 생산지로, 신선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기획전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고흥이라서 선택하는 소비’, 즉 산지 브랜드 신뢰를 구매로 연결하는 기획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흥몰은 최근 남도장터 연합몰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상품 노출과 구매 동선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고흥몰 관계자는 “고흥 농수특산물은 이미 많은 소비자 사이에서 ‘믿고 사는 산지’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흥몰을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